

Chapter 3 - 효과적인 대학 공부

■ 학습목표

- 효과적인 대학 공부를 위한 예습과 복습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강의 듣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1. 예습하기

1) 예습의 중요성

- 대학의 교양, 전공과목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 신입생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임
- ()은 교수님의 강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인 용어의 이해, 단어 내용의 파악, 질문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강의에 임하는 것으로 월등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음
- 학업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예습과, 복습을 둘 다 하며, 중위권 이하인 학생들은 복습에 대부분 치중 함
- 예습을 했을 때 이해력이 90%라고 가정할 때 예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예습에 하게 됨에 따라 얻게 되는 다양한 효과

① 예습이 복습보다 3-7배 효과가 있음

열등생과 우등생의 차이는 강의 내용의 기억 차이에서 발생

강의 내용의 기억 차이는 강의의 이해 정도에 따라 결정

강의의 이해 정도는 학습내용의 파악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이해력에 의해 결정



예습에 의해 미리 파악한 학습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함

② 예습은 학생들에게 자신감, 집중력을 키워줌

자신감 : 강의 시간에 제공되는 내용을 빨리 습득케 함 /

교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할 확률이 높음 / 동료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음

집중력 :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를 수강 / 교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짐



학교생활의 자신감 및 강의에 집중력 향상

③ 성적이 떨어질수록 ()에 치중해야 함

예습을 통한 수업 내용의 이해력 상승 → 수업시간 동안의 높아진 이해력 → 복습시간의 단축
→ 더 많은 시간 예습에 할애

④ 연습이 전제되지 않는 복습은 무의미 함

학교 강의의 90%를 이해해야 완벽한 수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 강의 중 제공되는 많은 학습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연습이 필요

→ 강의 내용의 충분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행한 복습은 무의미함

⑤ 복습의 중요성에 혼선을 가지는 이유와 연습이 중요하다고 다수가 생각하는 이유

강의 내용 중 어려운 내용도 나중에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음 → 복습을 과신하는 행위

성적 상위권 학생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수업에 앞서 연습을 일상적으로 함

성적 하위권 학생의 특징은 대부분 연습도 하지 않지만 복습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대학공부에서의 효과적인 연습 단계

1단계 : () 꼼꼼히 읽어보기

- 수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강의 내용의 연습 차원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함

강의계획서

강 의 계 획 서

2017학년도 제1학기

교과목명	동국인의자기계발1	학수번호	R6C021-13
이수구분	공교	학 점	1
개설학과	의생명공학과	개설학년	1학년

담당 교수		담당 조교	
이 름	강성배	이 름	권혁규
연구실	054-740-4915	연구실	2891
e-메일	sbkang@dongguk.ac.kr	e-메일	bluestar0606@naver.com
전화번호	010-2541-1069	전화번호	
상담시간	사전연락 후 가능	상담시간	사전연락 후 가능

참사람 핵심역량	제1역량 : (1) 관련역량 : (1 0 0 0)
-------------	---------------------------------

[1단계] 역량 기반 수업 개요

본 교과목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신입생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바탕으로 올바른 학습법 및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도하며, 신입생 수준에서 요구되는 대학공부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또한, 교수와의 학사지도 면담을 통해 우리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 수 있으며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나아가 자기계발 및 성공적인 진로탐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학습하고, 신입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단계] 성취목표

No.	참사람 핵심역량	하위요소	내용
1	자비 실천 역량	시민윤리 의식	대학의 본질, 올바른 대학생활 및 동국의 인재상을 알 수 있다.
2	도전성취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동기	대학에서 요구되는 학습법, 대학시험 및 보고서 작성을 알 수 있다.
3	자비 실천 역량	봉사 및 사회참여	참사람 인성에 필요한 학습윤리, 인성, 봉사,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4	도전성취 역량	목표지향적 계획 및 실행 능력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기 위한 대학생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다.
5	도전성취 역량	경력관리 능력	참사람 인성, 학습활동과 대학생활 설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 할 수 있다.

페이지 1/8 PM 8:07

[그림 3-1] 강의계획서 예시 첫 화면

<표 3-1> 강의계획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항목	요소	내용	주의사항
개요		강의의 전반적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개요 : 강의 내용의 전반적 목적 파악 - 수업운영 방법 : 강의 진행 방식의 특징 파악 - 학습활동 계획 : 학생들의 활동 내용 파악 - 평가계획 : 평가 가중치, 평가 종류 및 내용 파악
주별 강의일정		세부적인 강의 일정 및 강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별 계획목록 : 주차 강의 내용 파악 - 주별 계획상세 : 주차 강의의 상세 내용 파악 - 참고문헌 및 페이지 : 주차 교재 내용 파악
강의교재/과제		교재 설명 및 과제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및 학습자료 : 주교재, 부교재 파악 - 교재 및 학습자료 상세 : 주, 부교재 소개 - 강의과제 목록 : 과제 제출시기 및 방법 파악 - 강의과제 상세 : 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

2단계 : () 읽어보기

-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주교재가 지정되어 있음
- 일부 수업에서는 교수님별로 작성한 수업자료(PPT 자료, PDF 자료, 프린트물 등)가 제공될 수도 있음
- 이러한 자료들 역시 주교재로 인식하고 반드시 수업 전에 읽어보고, 강의에 지참하고 들어가야 함

<표 3-2> 교재/수업자료를 통한 효과적 예습방법

항 목	주요 내용
1. ()를 통한 예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차는 그날 배울 내용의 가장 간단한 요약이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 목차에 포함되어 있는 낱말이나 용어의 뜻을 찾아보고 친숙해 지자
2. () 만들기를 통한 예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차를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어 보자 -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의문부호를 달자
3. 그림과 표 살펴보기 통한 예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 그림, 표임 - 그림과 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4. 요약 읽기를 통한 예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맨 앞, 맨 끝의 요약부분을 주목하자 - 가능하면 위 내용을 자신만의 이미지로 만들자

- 어느 정도 예습을 해야 할까? : 일단 예습을 공부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함
- 제대로 된 예습의 판단 기준 :
 - 첫째, 수업할 내용 중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 된다
 - 둘째, 지난 수업 내용과 오늘 수업 내용의 흐름이 파악 된다

<표 3-3> 구체적인 예습절차

단계	실행 방안	비 고
1단계	교재/수업자료의 목차 확인	-
2단계	지난 주 배운 내용 다시 생각하기	- 지난 주 노트 필기 내용 확인 병행
3단계	이번 주 배울 내용 예상하기	- 지난 주 수업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4단계	교재/수업자료 정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는 부분/모르는 부분 표시(교재/노트 표시) - 질문할 내용 표시

2. 강의 듣기

1)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의 마음 가짐

대학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수업시간에 집중 할 것이다.

Hand on(머리), Hands on(손), Heart on(가슴)에 바탕을 두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수업 전에 반드시 그 수업에 해당하는 분량을 미리 읽어 둘 것이다.

학기 초 제공된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해당 주차, 시간의 교재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의계획서상의 주요 학습내용이라도 살펴보고 수업 내용을 예상하고 강의에 들어가자

셋째, 수업 후에는 수업 내용을 한번이라도 정리해 볼 것이다.

해당 수업 시간에 꼭 읽어야 할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수업시간에 하지 못한 필기를 다시 정리한다.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교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다소나마 보일 것이다.

넷째, 교수님과 호흡을 맞출 것이다.

대학 수업에서는 교재가 원서일 경우도 있고, 교과 내용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충실히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수업시간 이후 혼자서 공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강의시간에 호흡을 맞추며 교수님의 질문에 적절히 반응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모르는 것은 꼭 알고 넘어갈 것이다.

공부를 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갔다가 막상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수님께 여쭙어 보는 것보다 스스로 참고서적을 찾아보거나,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친구와 같이 그 문제를 함께 풀어 보는 경험을 해 보면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 온다면 설명을 잘 해 주거나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

여섯째, 수업 전에 미리 강의실에 도착하고 수업이 끝난 후 5분 늦게 나올 것이다

수업에 임박하여 도착하게 되면 수업이 집중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강의실에 도착하여 그날 수업 내용의 목차를 읽어보거나 핵심 키워드를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져 보도록 하자. 그리고 강의 내용 중 의문이 났던 것은 수업이 끝난 직후 교수님께 짧게나마 여쭙어 보도록 하자.

2) 강의실에 들어 온 후의 마음 가짐

첫째, 강의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휴대전화를 끄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두어야 한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지키지 않아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봄으로 인해 스스로 수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벨 소리 울림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피해를 주고 교수님께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둘째, 강의 중에는 끊임없이 강의 흐름을 파악하자

교수님의 강의를 그저 듣기만 하거나 필기에만 몰두하지 말자. 대학에서 강의되는 내용은 항상 '왜 그렇지', '왜 교수님은 저렇게 설명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 할 건데' 등의 의문을 가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관련 내용이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며, 교수님에게 질문할 내용도 생기게 된다. 만약 그러한 의문이 생긴다면 '교수님 그 내용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교수님이 싫어하실까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한 학생을 눈여겨 볼 것인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셋째, 교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강의 중 자신과 시선이 마주칠 때 피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신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자신이 있다면 굳이 교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의 몸동작이나 손동작에 주목하자. 왜냐하면 그러한 동작들 속에서 교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강의 내용의 요점을 파악하자.

교수님의 강의를 진행되는 가운데, '이 내용은 중요하다', '이것은 시험에 나온다', 혹은 구체적으로 칠판에 쓰시는 내용은 반드시 노트필기를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시각적인 자료, 별도 유인물 제공, PPT자료를 통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노트필기나 따로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강의 전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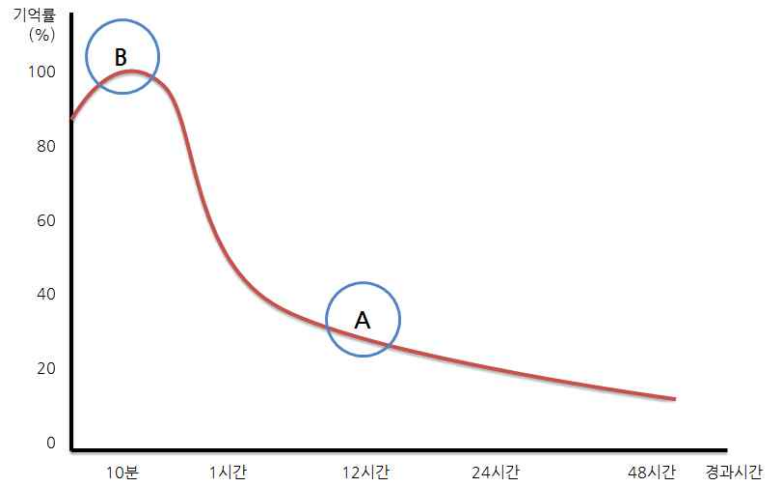
다섯째, 동료 학생들의 학습과 비교해보자

강의도중 교수님이 강의 내용 중 일부를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해보자. 만약 다른 학생들은 제대로 답변을 하였는데, 자신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것이라면 관련 내용은 반드시 메모를 해 두도록 하자.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답변을 했을 경우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서 보관해 두도록 하자.

3. 복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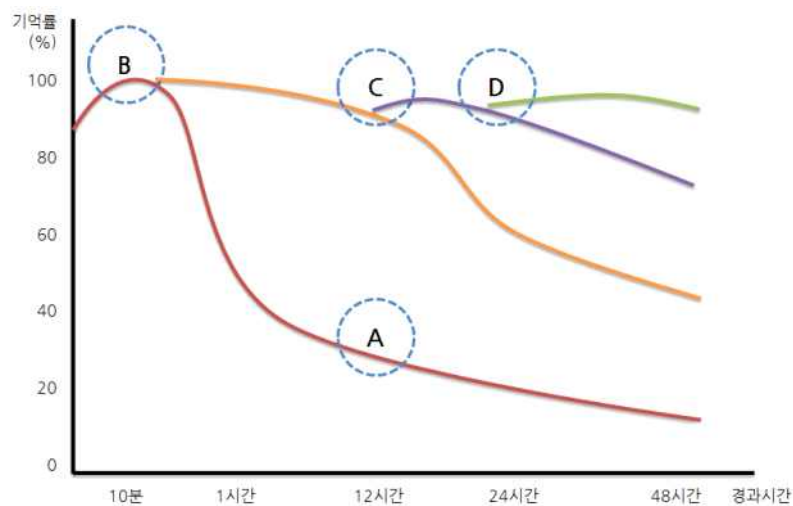
1) 복습의 효과 → [()]의 실험 결과

- 같은 횟수라면 "한번 종합하여 반복하는 것" 보다 "()"하는 편이 훨씬 더 기억에 효과적임
- 학습 후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며, 1시간 뒤에는 50%가 하루 뒤에는 70%가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하게 됨
- 따라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몰아서 한 번에 공부하는 벼락치기 방법보다는 평소 짧게나마 복습을 자주하는 것이 좋음



[그림 3-2] Ebbinghaus의 기억망각곡선 1

- 공부 10분 후부터 점점 내용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48시간, 즉 이틀이 지나면 원래 공부한 내용의 20% 이하만 기억하게 됨([그림 3-2] 참조)
- 만약 A 위치, 즉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복습을 통해 공부에 대한 기억을 다시 100% 되살려 기억하기 위해서는 평균 40~6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함
 - 왜냐하면, 공부한 내용의 70%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 만약 B 위치, 즉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복습을 한다면, 인간은 대략 10분 정도면 내용을 100% 다시 기억해낼 수 있음
 -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습내용을 잊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것임
 - 이 경우, 기억-망각 곡선은 아래와 같이 달라짐([그림 3-3] 참조)



[그림 3-3] Ebbinghaus의 기억망각곡선 2

- 만약, 이 상태에서 C 위치, 즉 복습 후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지는 2차 복습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을 100% 되살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 놀랍게도, 내용의 90%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10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기억을 100% 되살릴 수 있음
- 이렇게 2차에 걸쳐 복습을 하게 되면 기억 망각 곡선은 또 달라짐
- D시점에서 복습을 한 번 더 하면 더욱 오래 기억할 수 있음
- 결론 : 복습의 시점과 횟수에 따라 복습에 필요한 시간은 크게 단축됨[<표 3-4>, <표3-5> 참조]

<표 3-4> 기억망각이론에 따른 복습시간 1

	소요시간	소요시간	소요시간
1차 복습(10분 경과)	10 분	-	-
2차 복습(12시간 경과)	10 분	40분~60분	-
3차 복습(24시간 경과)	10 분	-	60분 이상

- 만약 4시간 정도 공부하고 복습을 한다면 이 시간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 위의 표에서 보여주듯 복습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짧게 여러 번 반복하여 하는 것이 효과적임

<표 3-5> 기억망각이론에 따른 복습시간 2

	10분, 12시간, 24시간 3회 복습	12시간 이후 1회 복습	24시간 이후 1회 복습
4시간 분량의 공부에 필요한 총 복습시간	120분 (2시간)	160~240분 (2시간 0분~4시간)	240분 이상 (4시간 이상)

2) 복습 방법 : 기본적인 사항

- 오늘 수업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단 몇 분이라도 회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 ex)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지?’, ‘주요 내용과 키워드가 무엇이었지?’
- 수업이 끝난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수업 내용을 다시 점검하자
- 복습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은 기록을 해두자
- 부가적으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보충 자료를 찾아 스크랩을 하자
- 다른 학생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과도 나의 것을 공유를 해 보자
- 복습시 참고할 만한 Tip's 을 읽어보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자!

▶ 복습을 할 때 참고할 만한 Tip's

- 쓸 데 없는 노트를 만들거나, 그냥 생각 없이 글을 많이 베껴 적는 것은 하지 말자. 기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고, 복습을 하자.
- 복습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내용 95% 정도를 배우게 된다.
- 여러 과목을 섞어 가면서 공부하자. 시간표를 만들 때 자신이 잘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섞자. 그렇게 하면, 자신이 정말 못하는 과목을 한 두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인드 맵 그리거나 그림 그리기 같은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해 보자. 그러면 복습이 좀 더 재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기억이 더 잘 날 것이다.
- 복습한 내용을 빠르게 기억하는 데에는 집중력이 중요하다.
- 복습 카드를 만들고, 정보에 하이라이트하자.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복사해 넣지 말자. 기출 문제를 풀어 보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고민해 보자.
-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거나, 같이 글을 읽어 달라고 하자. 그리고 반복하자.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억력도 향상된다.
- 자신감을 갖자. 시험에 대해 긍정적이면,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는데 도움이 된다.
- 복습한 내용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에, 자기 전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수도 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계들을 일정한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말씀 드려 보자.
- 복습하면서 앞 글자를 따서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노래를 만들면서 재미있게 복습해 보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 좌뇌와 우뇌를 다 사용하자. 그래야 복습에 도움이 된다.
-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개념에 대해 숙달이 된다.
- 새벽까지 공부하지 말자. 아침에 좀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한다.
- 편한 마음을 갖자. 급하게 하려 하지 말자. 시험 전에는 잘 자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날 것이다.

Chapter 4 - 대학 시험

■ 학습목표

- 대학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대학의 다양한 시험 유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 대표적인 대학 시험 유형인 서술형/논술형 시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

1. 시험의 유형

(1) 암기와 이해를 한 번에, ‘()’

- 학생들의 요약 능력과 이해 능력, 적용 능력, 암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 유형임
- 가끔은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복수의 문단 단위로 작성해야 함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것보다는 관련 개념까지 함께 이해한 후 정리하여 작성하는 답안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보통 서술형의 시험을 잘 준비하려면 평소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반복 설명, 강조하는 내용을 잘 표시해 두었다가 시험 기간에 실제로 예상 답안을 작성하며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됨
- 실제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작성하는 중에 답안 내용이 뒤섞여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므로, 작성 전에 개요를 한 번 구상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됨

(2) 심층적인 지식을 위한 ‘()’

- 보고서는 학생이 강의시간에 들었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교수에게 제출하는 문서임
-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자하는 목적의 시험유형임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수업 교재의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 의미 파악을 원하는 강의에서 이 방법의 시험 유형이 주로 채택됨
-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주제에 따른 질 좋은 자료를 찾는 것이 관건임
 -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님이 추천하는 책이나 문헌을 적극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임
 - 글로 제출하는 시험인 만큼 맞춤법과 올바른 문장 구성에 유의해야 함

(3) 성실함이 키포인트! ‘()’

- 시험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부터 성실도, 스피치 능력까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유형임
- 조별 과제를 통한 발표 시험은 조원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향상시킴
-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참신한 주제의 선정, 성실한 발표 자료의 준비, 명확한 발표 태도가 요구됨

(4) 자료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

- 다양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시험 유형임
- 기억력, 정보수집, 순발력 등 복합적인 능력을 동시에 요구됨
- 매우 방대한 자료가 제공되거나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은 정리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찾기 위해 자신만의 정보 목차를 정해놓기도 함

(5) 쉬우면서도 어려운 ‘()’

- 문제의 관찰에서 해결까지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임
- 논술 시험은 크게 명료한 주제어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는 방식과 장문의 제시문을 읽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많은 학생들이 논술형 시험에서 주로 범하는 실하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거나 객관적 자료의 제시 없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임
- 논술형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상 문제를 선정하고 반드시 모범답안을 써보아야만 함
→ 가능하면, 모범답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함
- 위 과정을 거친 몇 개의 모범 답안을 소위 시험노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6) 예술에서 생활까지 다양한 ‘()’

- 대학에서의 실기 시험은 예체능 계열과 더불어 공학,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주로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물을 만들어 제출하는 유형과 정해진 시간에 노래, 무용, 체력 등의 시험을 치르는 유형이 있음.
- 수업에 따라 매주 실기 시험을 진행하는 곳부터 한 학기에 한 번 시험을 치르는 곳까지 진행 방법도 다양함
- 실기 시험은 평소 꾸준한 준비와 연습을 요구됨
- 노력의 결과물이 한순간의 시험을 통해 평가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드러낼 수 있는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보여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대학 시험에 대한 조언

(1) ()의 의미 - 더 노력해야 한다.

- 대학의 평가는 대개 상대평가로 이루어짐 / 같은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간의 경쟁임
- 성공적인 대학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2가지의 노력을 해야만 함

▶ 강의 시간에 최대한 집중할 것!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벽까지 놀다 학교에 와서 수업시간에 조는 것만큼 손해 보는 일도 없다. 눈은 칠판과 교수님을 향하고 있지만 귀 기울여서 수업을 듣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 교수님과 가까운 곳이면 더욱 좋다. 교수님이 앞에 계시면 문자 메시지도 확인도 안게 되고 시계도 안 보게 된다.

▶ 공부는 평소에 미리 할 것!

대학 시험은 생각보다 시험 범위가 넓다. 따라서 공부는 평소에 조금씩 해두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따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통학버스 안, 공강 시간, 잠들기 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복습했던 수업 내용은 시험기간에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는 강의내용에 있다.

- 상당수의 시험 문제는 수업시간 중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음
-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책이나 교재에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함
-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실 때 시험과 관련한 힌트를 미리 주시는 경우가 많음

(3) 교과목별 출제 유형을 미리 파악하자.

- 대학 시험의 출제 유형은 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수님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어떤 교수님은 무조건 암기하여 적는 것보다 중요 단어나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말로 적는 것을 중요시 하는 교수님이 있음
- 반면 또 어떤 교수님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적는 것을 중시하는 교수님이 있음
- 미리 해당 수업을 수강해 본 선배나 주변 친구들에게서 그 과목의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조언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시험 준비가 될 수 있음

(4) 암기에는 반복이 최고다.

- 모든 시험 공부의 첫 출발은 암기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암기한 내용들은 며칠 뒤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함
- 강의가 끝나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강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함
- 강의의 중요 내용은 반복해서 복습해야 시험에 임박해서 빠르게 암기할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대학 시험 준비를 위한 Top's 중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해보자!

▶ 대학 시험 준비를 위한 Tip's

1. 공부를 하지 않고 운으로 A나 B를 받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상대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열심히 공부를 해도 C를 받는 경우도 있다. 실망하기 보다는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으므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2. 강의시간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자. 특히, 수업 중간에 질문을 하여 답을 찾으면 그 내용은 오랜 시간 기억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수님께 이 메일을 보내거나 연구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주 쉬운 것을 모른다는지 해서 질문하면 곤란하다.
3. 시험 4주 전까지는 노트 필기 정리, 시험 자료 정리, 수업중 제공된 보충자료의 확보 등을 마친다. 시험 3주 전까지는 교재를 한 번 정도는 읽어서 이해를 마치며, 시험 2주 전까지는 암기해야 하는 용어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시험 1주 전까지는 예상 문제를 출제하고 실제 시험을 치루듯 논술을 해보며 막히는 부분과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임에도 제대로 쓰지 못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4. 교재, 전공서적의 개념과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강의 중 교수님께서 강조한 개념과 용어는 다른 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교재, 전공서적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가능한 많이 풀어 보아야 하며, 반복해서 논술을 해보아야 한다.
5. 특히, 논술형 시험을 보게 된다면 예상 문제를 내보고 스스로 답안을 미리 만들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가능하다면, 친구와 예상문제를 교환하고, 상호 예상문제에 대한 답안을 채점해 보고, 부족한 점을 이야기 해본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7.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빈칸으로 내지 말고 뭐라도 적어내라! 백지로 시험을 제출하는 것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소한 시험문제는 아니더라도 해당 교과목의 공부하였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라고 적고 나와야 할 것이다.

3. 시험 문항의 종류 : 대학에서 수행되는 지필 시험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음

- () : 제시한 진술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는 유형 (O,X 문항, Yes-No 문항, 또는 True-False 문항이라고 함)
- () : 문제와 몇 개의 선택지를 함께 제시하고 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 정답지를 고르도록 하는 유형 (일반적으로 4지선다 또는 5지선다 문항으로 구성됨)
- () : 문제 리스트와 응답 리스트를 제시하고 서로 관계있는 것을 찾아 연결하도록 하는 유형
- () : 문제를 의문문이나 명령문으로 제시한 후, 단어나 숫자, 기호 또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쓰게 하는 유형
- () : 진술문의 일부분을 () 형태로 비워 놓고 빈자리에 적당한 단어, 구, 숫자나 기호 등을 넣어 진술문을 완성하는 유형.
- () : 여러 문장을 이용하여 문제의 답안을 간략히 기술하는 유형 (일반적으로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많이 사용됨)
- () :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서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유형 (일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논리적 분석력과 판단력도 함께 평가됨. 대학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험 유형에 속함)
- () : 논술형 시험이 학생의 논리적 설득력에 주된 초점이 있는 반면에, 수필형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수필을 쓰듯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유형

4. 서술형/논술형 문항의 작성법

- 대학교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점은 ‘암기’는 여전히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점임
- 고등학교 시절과 다른 것은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이 많고, 서술형·논술형 시험에서도 역시 암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임
- 단순히 교재의 내용이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시험지에 옮겨 적는 수준이 된다면 A이상의 높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서술형/논술형 시험에서 A이상의 높은 성적을 기대하는 학생이라면, 시험문제에 대해 교재의 내용, 교수님의 강의내용과 함께 관련 시험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 ()이 담겨진 내용을 쓸 수 있어야 함
- 서술형/논술형 유형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함

(1) ()를 빠뜨리지 않기

- 핵심 단어는 답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로 전문용어일 수도 있으며 저자 또는 연구자의 핵심어일 수도 있음
- 답안 작성에서 이 핵심 단어를 빠뜨리면 안 된다. 특히, 교재의 본문 중에 굵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 단어나 혹은 각 페이지의 양 날개에 그러한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주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

(2) ()를 파악해서 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야 함

-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형식을 잘 지켜야 한다.
- 특히, 시험의 범위와 문제 유형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함
- 대학시험은 해당 교과목의 교수님만이 출제하므로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 혹은 설명하는 방식을 주목하고 노트필기나 메모를 해두고 시험답안 작성시 적극 활용해야 함

(3) ()로 작성해야 함

- 교재의 전문적인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함
-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독특한 생각이나 기술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교재나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는 없는 예를 들고 이를 기술하는 것도 효과적임

(4) ()와 ()을 작성해 보아야 함

- 서술형 시험은 예상 문제와 그 문제에 따른 예상 답안을 작성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됨
 - 왜냐하면 예상 답안 작성 연습은 짧은 시험 시간에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며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전략적인 답안 작성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임
- 특히, 이러한 노력을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5회에 걸쳐 부족한 채우는 방식으로 시도해 보아야 함
-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제대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두꺼운 교재나 노트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며, 자신만의 요약된 예상 답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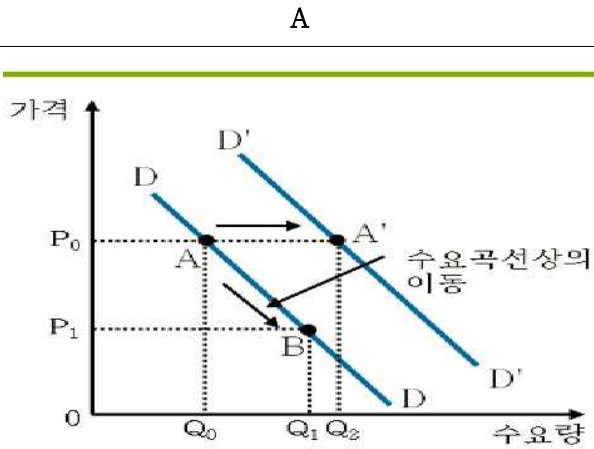
(5) ()을 통해 정보교환과 토론해 보아야 함

- 자신보다 수업을 잘 준비하고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위 학생을 중심으로 몇 명의 학생들과 시험을 앞두고 상호 예상문제 및 예상답안을 서로 교환하고 평가를 하면서 토론해 보아야 함
- 위 과정을 수회에 걸쳐 수행하고, 막상 시험문제를 받았을 때 그 예상문제가 출제된 것에 스스로 놀랄 것이며, 예상문제와는 다소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논술을 해 나가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실제 출제되었던 서술형 문제 답안 작성 예를 살펴보고 왜 학점에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자!

■ 서술형/논술형 시험의 실제 예 : 왜 성적에 차이가 날까?

▶ 시험문제 :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재화가 정상재라고 가정한다.

•수요량의 변화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떨어지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원하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으로 상승하면 아이스크림 수요량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500원으로 하락하면 아이스크림 수요량을 2개에서 3개, 4개로 늘이는 것을 말한다. 즉, 위의 그래프를 보면, 가격이 P_1 에서 P_0 로 상승하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며, P_0 에서 P_1 로 하락하면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유발한다.

•수요의 변화는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재화의 수요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자체가 늘어나고, 소득이 하락하면 수요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소득이 4천만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위의 그래프를 보면, D' 에서 D 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따라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을 유발한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이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승한다면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 자체를 늘릴 수 있고, 수요곡선 자체가 D' 밖(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을 유발한다.

•수요량의 변화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떨어지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원하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으로 상승하면 아이스크림 수요량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500원으로 하락하면 아이스크림 수요량을 2개에서 3개, 4개로 늘이는 것을 말한다.

•수요의 변화는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재화의 수요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자체가 늘어나고, 소득이 하락하면 수요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소득이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승한다면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 자체를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아버지의 소득이 4천만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

★앞 페이지 4. 서술형/논술형 문항의 작성법을 참조하며, 양 쪽의 답안을 살펴보자!★

- ① 핵심단어 : A, B 필요한 핵심단어, 용어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래프의 존재 유무와 관련 그래프를 통한 설명이 존재하는가?(각 교과목별로 핵심 개념, 용어의 기술에 꼭 필요한 도구가 있다)
- ② 출제자의 의도 : A 답안에 있어 볼드체에 유의하라. 출제자(교수님)는 개념(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 ③ 자신만의 언어 : A, B 답안에서는 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 예시를 들고 있다. 하지만 A 답안의 경우 그래프에 대한 예시를 들고 그에 따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에 유의하자!
- ④ 예상문제/예상답안 : 위와 같은 문제는, 예습, 강의듣기, 복습을 충실히 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글로 써보아야 한다. 수회에 걸친 연습으로 답안을 가다듬자!
- ⑤ 정보교환/토론 : 동일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예상문제를 교환하고, 예상답안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보자. 각자의 예상문제, 예상답안의 크로스 체크는 서술형/논술형 시험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제 2. 아래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교사들의 담화는 교육과정 개발 수준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A교사와 B교사의 입장을 각각 장·단점 위주로 비교하고 어느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해당 교육과정 개발 수준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총 6점).

A교사 : 요즘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7차 교육과정 개발 이후로는 큰 틀의 변화도 없고……. 통합교과와 창의적 재량활동은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이나 학생들의 요구는 거의 담아내고 있질 못해요. 차라리 우리 학교 선생님들끼리 힘을 모아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B교사 : 어휴, A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어요.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과정의 문제가 꼭 교육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쳐도, 그 질이나 수준에서 현재 교육과정보다 낫다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간의 차이가 크게 생기기라도 하던 큰일이죠.

*A교사와 B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수준 비교 : 3점

*교육과정 개발 수준의 타당성 주장 : 2점, *어법의 준수 및 체계적 작성 : 1점

A	B
<p>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 운영방법이 달라지므로, 바람직한 시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p> <p>A교사의 경우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해당 지역과 학생, 학부모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과 흥미를 존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인 비용도 부담이다. 또한 B교사의 지적처럼 교사의 질에 따라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한다.</p> <p>반면 B교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더 찬성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사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질 관리도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완벽할 수 없어서 학교와 학생의 개성을 무시하기 쉽고, 교사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p> <p>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의 조화일 것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 예산을 투자하여 큰 틀에서의 교육과정을 개발, 배포하고 적정 수준의 자율권을 학교에 주어 학교에서 일부분은 직접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연구학교, 시범학교 등을 활성화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들이 전문성을 쌓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A교사 :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p> <p>① 지역의 특수성 반영 ② 교육문제 해결능력 신장 ③ 교사의 전문성 신장 ④ 학부모 및 학생의 특성/ 요구 반영 ⑤ 교육격차 심화</p> <p>B교사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p> <p>①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과 국가의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킴 ② 전문인력, 막대한 비용, 장시간의 투자 가능 ③ 교육과정의 표준화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 용이 ④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보장 ⑤ 각 지역과 학교의 특색 미반영 ⑥ 전문성과 자율성 저하</p> <p>나의 입장</p> <p>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교육과정은 없다. 그렇기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p>
<p>A답안과 B답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답안이 더 좋은 답안일까?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았다.</p> <p>(1) 주요 개념 및 핵심 단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p> <p>(2) A교사와 B교사의 비교 내용이 구체적인가?</p> <p>(3) 교육과정 개발 수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타당성 있게 담겨 있는가?</p> <p>(4) 논술형에 맞는 어법과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가?</p>	